1차산업·지역경제 활성화 고심… "소득 안정화 최우선"

>>2면에 이어

▷송=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자치도 시작과 시군통합을 거쳐 1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특별자치도는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진정한 특별자치라는 '자기결정권' 엔진을 달아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주도로 행정체제도 개편하고, 제주계정과 면세사업 외에 '예외적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발전을 위한 종자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오랫동안 요구되어온 사항입니다. 도민사회에서는 미국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헌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 형평성 논리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점진적 제도이양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일단은 헌법개정 절차 자체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대통령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국회에서 개헌이 불성립되면서 불발됐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으로 여당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개헌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헌법개정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헌법 개정의 동력이 만들어지고 논의가 활성화되어진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헌이 추진되면 반드시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과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오=제주도의 농수축산업은 전체 GRDP에서 10%로 전국의 2%의 5배 수준으로 산업적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1차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안정은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공익형직불제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해 나가고 농수산물의 가격안정화 대책은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주형농수산가격안정관리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므로써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서귀포의 1차 산업을 핵심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감귤 원지정비사업, 우량종자보급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고 농산물의 저온저장시설 확충, 감귤 산지 경매 제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도 제도화해서 1차 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해 내겠습니다.

▷송=농업과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은 단순한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환경보전과 녹지, 경관 등 유무형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가치를 '공익형직불제'와 연계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등 농산어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1차 산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재해재난보험과 수입보장보험 대상에서 빠져있는 수산업 종사자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식물자원, 바람, 지하수, 해조류 등 공공재산을 활용해 자산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의 수익을 도민에게 분배하고 귀속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도민주도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어떤 산업으로 이끌어가야 하는지요.

▷위=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해 서귀포를 바이오·생약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세계시장 규모가 1418조원(2018년 기준)에 이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서귀포시는 제약·바이오 산업 원료의 보고인데 약학대학의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제약, 바이오기업과 연구소를 추가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체질을 바꿔내겠습니다. 더불어 1·3차 산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는 새로운 성장모델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송=지하수가 자원이 되듯이 제주의 바람, 바다, 식물자원 등 공유자원을 도민주도로 산업화하기 위한 '제주형 제조업'이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해양산업을 일으키고, 치유·생명산업과 연계한 미래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형성과 추진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오=농수산물의 가격안정화 사업과 소득향상, 관광산업의 양적성장전략에서 질적성장체계로의 재편을 기본으로 산업간 융복합전략과 고부가가치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1차산업(농·수산업)의 가격안정제도와 공익형직불제도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이 가능합니다. 생태관광, 의료관광, 마이스산업 등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질적관광체계로의 전환과 기존산업을 근간으로 IT, BT,CT 등을 결합한 융복합산업의 육성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송재호 "직불제 연계 기본소득 지급"
오영훈 "가격안정관리제 뒷받침"
위성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조항 확보·면세점 이익 환원 등
제주도 재정 확보 방안으로 약속

지역사회 참언론 역할도 강조

▶제주도의 재정을 늘릴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위=보통교부세 3% 조항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교부세 3% 조항이 마련됐는데 교부세가 법정화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로 들어오는 국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제주도에 배정되는 전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3% 조항을 개선하면 됩니다.

▷오=2019년도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1.4%인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3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관광객 감소,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자체 세원이 약화되고 있고, 그 기간도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수기반 확충,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 관점을 갖고 새로운 산업육성과 연계해 꾸준히 전개할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도록 해 연간 40억씩 제주도 관광발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간 2조원 매출실적이 있는 도내 대형면세점의 이익이 제주도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제주는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하는 특례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제주는 제주계정을 통해 3500억원 가량, 면세점 수익으로 1000억원 정도를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계정과 면세사업 외에 '예외적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발전을 위한 종자돈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언론들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지방분권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중앙 중심입니다. 그래도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제주도의 소식과 사람 사는 얘기를 도민께 알려드리는 역할은 중앙언론에서 할 수 없습니다. 지역 언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 언론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 지역 언론이 변함없이 소중한 이유이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가짜 뉴스가 사실인양 돌아다니는 현실입니다. 독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힘없는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참 언론이 필요합니다.

▷위=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 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라일보에 바람이 있다면요.

▷송=제주의 주요 일간지가 갖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사회의 여론을 잘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현명한 시각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바른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한라일보 창간 제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이래 한라일보는 제주 구석구석의 소식을 도민께 제공하면서 도정을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적인 지역 언론의 하나로 발전하지 않았나 합니다.

▷위=창간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한라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담=조상윤 편집국장
정리=송은범기자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회장 강원호

부회장	허원석	부회장	문은숙	여약사위원장	고경희
〃	임철우	총회의장	좌석훈	보험위원장	김민성
〃	김경희	총회부의장	강은실	학술위원장	장영수
〃	양창국	〃	오지홍	한약위원장	송근형
〃	김미향	감사	박민선	근무약사위원장	홍석중
〃	성길홍	〃	허준	병원약사위원장	김윤희
〃	오창은	총무위원장	강대원	홍보위원장	박정희
〃	이애숙	약국위원장	양승화		

제주시 아봉로 18(아라2동), TEL.755-9525, FAX.757-3428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영배

선임이사	강성철	이사	강승우	이사	이이모
이사	강대현	이사	강길만	이사	문도열
이사	진영화	이사	이창호		
이사	한영철	이사	노해필	감사	김대우
이사	고성빈	이사	고동범	감사	제용민